

연세대 2021학년도 모의 인문사회 1-1번

- ☞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관계에 관하여 제시문 <나>에 나타난 양립론자의 입장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제시문 <다>와 <라>를 평가하시오. (800자 안팎, 30점)

<나>

Compatibilism* emerges as a response to a problem posed by determinism. But what problem is that? Well, suppose, as the thesis of causal determinism tells us, that everything that occurs is the inevitable result of the laws of nature and the state of the world in the distant past. If this is the case, then everything human agents do flows from the laws of nature and the way the world was in the distant past. But if what we do is simply the consequence of the laws of nature and the state of the world in the distant past—then we cannot do anything other than what we ultimately do. Nor are we in any meaningful sense the ultimate causal source of our actions, since they have their causal origins in the laws of nature and the state of the world long ago. Determinism therefore seems to prevent human agents from having the freedom to do otherwise, and it also seems to prevent them from being the sources of their actions. If either of these is true, then it's doubtful that human agents are free or responsible for their actions in any meaningful sense.

However, compatibilists believe that free will is compatible with determinism. They argue that the view that free will is incompatible with determinism rests upon a confusion of causation with coercion** or control. I am unfree, certainly, if my actions are controlled by another agent: if, for instance, my desires and beliefs are simply irrelevant to what I end up doing. If someone physically manipulates me, or holds a gun to my head, then my actions have their source in someone else, and I am not responsible for them. But the mere fact that determinism is true (if it is true) doesn't show that our actions are coerced or controlled by others. When I go get myself a cheese sandwich, I do so because I want to, and this remains true even if I am determined to want a cheese sandwich. No one forces me to get a cheese sandwich. Not even determinism forces me: to be determined to do something is nothing like being forced to do it. Once again, force is something that is applied to me in spite of what I want, by others or the external world, but determinism, if it is true, works through me and my desires. We rightly object to force, external control and coercion, but we are just confused if we identify determinism with these external powers. Even if determinism is true, rational agents are typically free: free to do what they like.

* compatibilism, 양립론. ** coercion, 강요.

<다>

실험자는 심리학 실험실이 있는 건물 로비에서 참가자를 맞았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실험실로 올라가면서, 실험자가 참가자에게 가벼운 투로 서류가방에서 몇 가지 서류를 꺼내야 하니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잠시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 다음 커피를 돌려받고 참가자에게 클립보드의 서류를 건넸다. 모두 10초 안에 벌어진 상황이지만, 참가자가 커피를 들고 있던 잠깐의 시간이 우리 연구의 결정적 순간이었다.

실험실에 들어가서 참가자는 어떤 사람에 관한 소개문을 읽었다. 다른 참가자들도 동일한 소개문을 읽었다. 흥미롭게도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었던 참가자들은 차가운 커피를 들고 있었던 참가자들보다 그 사람을 더 좋게 보았다. 물리적으로 따뜻하거나 차가운 온도를 경험한 것이 따뜻하거나 차가운 사회적 감정을 활성화시켰고, 이것은 다시 참가자들이 타인에게 느끼는 호감에 영향을 미쳤다. 모두 무의식중에 벌어진 일이었다. 실험이 끝나고 참가자들에게 자세히 물어보자, 커피를 들었던 경험이 그 사람에 대한 인상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못 한 것은 당연했다. 따뜻하거나 차가운 무언가를 잠깐 들고 있는 행위가 타인에게 느끼는 감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는가?

이 연구를 진행하고 발표한 이후 필라델피아의 한 호텔방에서 비슷한 일을 경험하였다. 오전 9시쯤에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학회장으로 내려가려던 참에 전화벨이 울렸다. 과학 전문 기자에게 온 전화였다. 몇 달 전에 발표한 커피 논문에 관해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심리학과 대학원생들에 관한 기사라서 특히 나와 함께 연구에 참여한 로렌스 윌리엄스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 했다. 나는 열정적인 표현을 써가며 로렌스를 칭찬하고 그가 얼마나 대단한 연구자인지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했다. 그러다 잠시 숨을 고를 때 기자가 던진 한마디에 나는 무척 놀랐다. “혹시 지금 뜨거운 커피를 들고 계신가요?” 나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오른손을 보였다. 기자 말이 맞았다. 오른손에는 객실 커피머신에서 뽑은 종이컵에 담긴 커피가 들려 있고, 왼손에는 전화기가 들려 있었다. “갑소사, 그렇군요. 와.” 기자가 웃으며 말했다. “딱 걸리셨네요!”

<라>

유아에서 성인으로, 그리고 노년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30년 이상 성장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는 것은 최근이나 가능해진 일이다. 이러한 전향적(prospective) 연구를 통해, 그동안 중요하게 여겨지던 회고적(retrospective) 연구의 수많은 가설들이 폐기되었다. 회고적 연구는 성인기에 이른 개인의 모든 특성을 설명해 낼 수 있었다. 기억을 통해 개인의 삶을 되짚어보면 설명에 필요한 퍼즐 조각들을 모두 찾아낼 수 있었다. 한 가지 구체적인 단서만 있으면 충분했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던 친척, 엄격한 부모, 교통사고, 폭력적인 이웃 등을 끌어들이는 수도 있었다.

유년기가 성인기의 행복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수행된 전향적 연구들에 따르면 그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장 훌륭하게 노년에 이른 사람과 최악의 노년에 이른 사람의 유년기를 비교해 보았을 때, 둘 사이에는 주목할만한 차이가 없었다. 어린 시절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었다거나, 일찍 대소변을 가렸다가, 늘 감기를 달고 살았다가, 신경이 예민한 아버지나 어머니를 두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거나 불행한 노년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었다. 50세쯤 되면 유아기 때의 신체건강, 형제간의 나이 터울이나 태어난 순서, 심지어 부모를 일찍 여윈 것에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성인이 된 자녀가 정신 이상을 앓고 있는 경우, 모든 부모는 아이가 영유아기 시절에 겪은 문제들(공포증이나 지나친 수줍음 등)이 18세에도 계속 나타났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정상적인 성인 자녀를 둔 부모 중에도 60퍼센트 정도는 그와 똑같은 경험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고아로 자라난 사람이라 해도 80세 즈음이 되면 부모 품에서 사랑을 받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행복하고 기운이 넘칠 수 있다는 얘기다.

불행한 유년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는 가설도 널리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가설도 회고적 원인 조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알코올 중독자나 의사들은 회고적 견지에서 알코올 중독의 원인으로 불행한 유년기를 지목한다. 그러나 전향적 연구를 근거로 보자면, 기억은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놓을 뿐이다.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불행한 유년기를 보내지는 않았으며,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나란히 걷기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문장 기능	해당 내용																			
625																				
650																				
675																				
700																				
725																				
750																				
775																				
800																				
825																				
850																				
875																				
900																				

☞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관계에 관하여 제시문 <나>에 나타난 양립론자의 입장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제시문 <다>와 <라>를 평가하시오. (800자 안팎, 30점)

[독해]

(나) 결정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므로 인간은 여전히 자유롭다.

(다) 물리적 환경이 사람의 판단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라) 유년기 경험이 성인기의 행복 수준을 결정하지 않는다.

[논리평면] 가치추론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나)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있어도	인간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G
대상	(다)	(무의식적 차원에서) 물리적 환경이	인간의 판단에 영향	b
	(라)	유년기의 경험	성인기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음	b

[예시답안] 792자

문단	기능	내용
1	기준-핵심	자신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존재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기준-상술	제시문 (나)의 양립론에 따르면 결정론과 자유 의지는 양립할 수 있다. 결정론은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 원인과 여기에 영향을 주는 원리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결정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원인에 따른 필연적 반응을 보이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그 결과가 자신에 자신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결정론 또한 대상자의 자유 의사, 즉 욕망을 거쳐 작용한다는 것이다.
2	주장	이러한 양립론에 따르면 제시문 (다)는 부적절한 견해라고 평할 수 있다.
	대상-핵심	(다)에는 물리적 환경이 사람의 판단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상-상술	잠깐 동안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다는 것이다.
	적용	하지만 이는 결정론적 관점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뜻한 커피에 영향을 들고 있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라는 강요를 받은 것이 아니다.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 판단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3	주장	같은 관점에서 제시문 (라)의 주장 또한 잘못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대상-핵심	(라)는 유년기의 경험이 성인기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말한다.
	대상-상술	유년기에 불행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도 행복한 성인기를 맞이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벌어진다는 것이다.
	적용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결정론적 원리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수정되어야 한다. 성인기의 상태에 대한 자신의 의지가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과거 사건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학 출제의도]

서로 다른 배경의 제시문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영어 제시문으로 고교 기본어휘 목록에 속한 어휘와 평이한 문장들로 구성된 지문을 선정함으로써 영어 능력 자체보다는 사고력과 논리력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나> 제시문 번역(의역)]

양립론은 결정론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일까? 자, 인과적 결정론이 말해주듯이, 일어나는 모든 것은 먼 과거의 자연 법칙과 세계의 상태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가정해보자. 만일 그렇다면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자연의 법칙과 먼 옛날부터 있었던 방식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먼 옛날의 자연법칙과 세상에 일어난 일들의 결과라면, 우리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는 일(죽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한 이것들이 자연의 법칙과 세계에 대한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한 의미있는 인과적 원인이 될 수도 없다. 따라서 결정론은 인간이 자유를 가질 수 없게 하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인간이 그들의 행동의 근원이 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사실이라면,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유롭다거나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양립론자들은 자유 의지는 결정론과 양립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자유의지가 결정론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견해는 강제나 통제로 인한 인과관계의 혼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내 행동이 다른 인간에 의해 통제된다면, 나는 자유롭지 못한 게 확실하다: 예를 들어, 만약 나의 욕망과 신념이 내가 결국 하게 되는 행동과 무관하다면(나는 자유롭지 못하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신체적으로 조종하거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다면, 내 행동의 근원은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고, 나는 그 행동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정론이 진리라는 사실만으로는(만약 사실이라면)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강요되거나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 내가 치즈 샌드위치를 사러 갈 때, 나는 내가 먹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이는 내가 치즈 샌드위치를 원하기로 결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실로 남아 있다. 아무도 나에게 치즈 샌드위치를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 결정론조차도 나에게 어떤 강요를 하지 않는다: 어떤 일을 하기로 정해진다는 것은 그 일을 강요당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강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나 외부 세계에 의해 내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결정론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나와 나의 욕망을 통하여 작동한다. 우리는 당연히 강요, 외부의 통제, 강요에 반대하지만, 이러한 외부적 강제력과 결정론을 동일시한다면 혼란스러울 뿐이다. 혹시나 결정론이 사실일지라도 이성적인 인간은 늘 그렇듯이 자유롭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대학 문항해설]

제시문 <나>는 자유의지에 관한 결정론과 양립론의 입장을 다룬다. 만약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할지가 자연법칙에 의해 미리 결정되어 있다면, 개인에게는 자신의 행위를 선택할 자유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립론자는 이러한 견해가 인과성을 강제와 혼동한 결과라고 본다. 이미 모든 것이 인과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해도 개인의 선택 자체는 자유롭게 이뤄진 행위이지 통제되고 강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양립론에 따르면, 결정론이 실재하는 힘이더라도 개인의 욕구와 의지를 통해 실현될 수 있으므로 결정론과 자유의지가 대립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핵심 지문인 두 번째 문단을 Neil Levy의 『Neuroethics』에서 수정 발췌하였고,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관계를 소개하는 지문을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에서 수정 발췌하여 첫 문단으로 제시하였다.

제시문 <다>의 실험 결과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따뜻한 음료를 들고 있었던 참가자가 차가운 음료를 들고 있었던 참가자보다 다른 사람을 더 따뜻하게 대했다. 둘째, 이러한 과정을 참가자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개인이 스스로 의도했다고 생각한 행위가 실은 환경에 의해 유도된 것일 수 있다.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관점에서 제시문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다’라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John Bargh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Before you know it)』에서 제시문을 수정 발췌하였다.

제시문 <라>는 유년기 환경의 영향에 관한 회고적 연구의 결과를 반박한다. 회고적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기억(회고)에 의존하여 현재의 상태(성인기 행복 또는 불행)와 일치하는 과거의 조건(유년기 환경)을 찾으려 하였다. 그에 비해, 최근에 가능해진 전향적 연구는 연구 대상자를 장기간 추적함으로써 유년기 환경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예상보다 작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제시문은 ‘환경이 인간의 삶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George Vaillant의 『행복의 조건(Aging well)』에서 제시문을 수정 발췌하였다.

[대학 채점기준]

먼저, 제시문 <나>에 나타난 양립론자의 반박 대상(‘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결정론’)과 근거(‘인과관계와 강요를 혼동’), 그리고 결론(‘결정론적 환경에서 개인은 여전히 자유롭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다>는 개인의 선택(‘타인에 대한 평가’)이 환경(‘음료의 온도’)의 영향을 받는 상황을 보여주는 실험을 통해 결정론적 인과성을 강조하는 데 비해, 제시문 <라>는 환경(‘유년기 환경’)이 개인의 삶(‘성인기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연구를 소개함으로써 자유의지의 역할을 더 강조하고 있다. 두 지문의 관점을 비교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양립론자의 입장에서 인과성과 강요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다>의 참가자가 외부의 힘에 의해 강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양립론자의 입장에서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양립론은 결정론과 자유의지가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견해이므로 단순히 결정론이나 자유의지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자유의지와 환경요인이 대립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라>를 해석하는 것은 양립론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대학 예시답안] 384자

양립론자의 입장에서 제시문 <다>의 실험 결과는 자유의지의 존재를 부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참가자는 비록 따뜻한 커피를 들었던 사전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타인에게 호감을 느끼도록 강요 받은 적이 없다. 참가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뜻하게 타인을 대했으므로 자유의지를 실현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제시문 <라>에서 개인의 삶은 환경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그 사실이 곧 인간의 행위와 의사결정이 자연법칙을 따르지 않는다거나 과거 사건의 영향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양립론자의 입장에서 볼 때, 열악한 유년기 환경을 극복한 사람의 경우에도 그 사람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행하는 과정에는 인과적인 법칙이 작용할 것이다.

<검토교사 의견>

사회과 교사: [문제 1-1]은 자유의지와 결정론에 관한 입장 중 양립론의 주장을 바탕으로 두 가지 심리학 연구에 대한 평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 <나>는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내용을 소개한 후, 양립론자들의 주장 논점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제시문 <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내용이고, 제시문 <라>는 결정론을 부정하는 내용이다. 제시문 <나>는 환경의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므로 <다>에 대해서는 자율적 선택 가능성을, <라>에 대해서는 행위 선택 시 작동하는 선행 행위(또는 환경)의 인과적 영향을 각 제시문에 대한 평가 논거로 삼을 수 있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교과에서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자율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도덕적 탐구 및 윤리적 성찰, 실천 과정으로 이어지는 도덕함의 능력” 함양을 교과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에서는 “글의 구성단위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동일한 화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글을 읽고 비판적으로 재구성한다.”, “글의 화제나 주제, 필자의 관점 등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후략)”를 성취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제 의도, 채점 기준, 예시답안은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제시문 안에 분석 기준과 대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시문의 요점을 잘 이해하였다면 [문제 1-1]에서 요구하는 핵심 사항을 파악하기에 충분하다. 제시문을 잘 이해하였으며 글의 주장과 근거를 구조적으로 잘 이해한 학생은 충분히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의 난이도는 ‘중’ 정도이다.